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 침노에 관한 두 본문(눅 16:16/ 마 11:12): Q 16:16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이해

김형동*

I

누가복음 16장 16절/마태복음 11장 12절(이하 Q 16:16)에 대한 정확한 어휘와 문맥과 해석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복음서 기자인 마태와 누가 자신도 본래적 Q의 말씀을 자신들의 정황에 맞게 재해석하면서,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마태와 누가의 상반된 입장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본래적 Q 본문과 마태와 누가의 본문에 대한 해석이 각각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결과,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성서 번역의 어려움을 빚어내고 있다.¹⁾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본래적 본

*부산장신대학교, 신약학.

1) 마태복음 11장 12-13절:

I. 개역한글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공동번역: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 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을 요한에서 끝난다.”

KJV: "And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th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For all the prophets and the law prophesied until John."

II. 표준새번역: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를 힘으로 빼앗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공동번역(성서공회, 성덕인쇄소, 1996):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를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애써서 힘쓰는 사람들이 하늘 나라를 차지한다. 그 나라에 대하여서는 요한까지의 모든 예언자와 율법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다.”

NIV: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문인 Q 16:16이, Q 학자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후기 편집층("Q2")에 속하는 말씀으로 분류되어 심판선언의 말씀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²⁾

그러므로 Q 16:16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신학적이고 전승사적인 연구가 다시금 요구된다.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Q 16:16은 소위 "폭력 문장"으로 이해되는 심판예고의 선언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을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현재성/임재를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이다.³⁾ Q 16:16은 초기 예수 전승에 있어서 율법,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 예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해석학적 열쇠를 제공해준다. Q 16:16에 대한 본 연구는 예수 전승 (Jesus tradition)이 복음서 기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For all the prophets and the law prophesied until John."

누가복음 16장 16절:

개역한글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침입하느니라."

표준새번역: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은 요한 때까지이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는데, 모두 거기에 힘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애쓴다."

2) John S. Kloppenborg, *The Formation of Q*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112-15; Arland D. Jacobson, *The First Gospel: An Introduction to Q* (Sonoma: Polebridge, 1992), 116-20; Burton Mack, *The Lost Gospel: The Book of Q Christian Origins* (New York: Harper Collins, 1993). 한편 Q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논의에 대하여, 필자의 학위 논문 "A Study of Q: The Kingdom of God and Its Rejection As a Hermeneutical Key in Q." Ph.D.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98; Mikaku Sato, *Q und Prophetie: Studien zur Gattungs- und Traditionsgeschichte der Quelle Q* (Tübingen: Mohr, 1988); Christopher M. Tuckett, *Q and the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Edinburgh: T & T Clark, 1996), 135-37; David Catchpole, *The Quest for Q* (Edinburgh: T & T Clark, 1993), 232-41; Richard A. Horsley, "LOGOI PROPHETON? Reflections on the Genre of Q," in *The Future of Early Christianity: Essays in Honor of Helmut Koester*. ed. Birger A. Pears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195-209; idem, "Wisdom Justified by All Her Children: Examining Allegedly Disparate Traditions in Q," in *SBL 1994 Seminar Papers* (Atlanta: Scholars Press, 1994), 733-51; John J. Collins, "Wisdom, Apocalypticism, and Generic Compatibility," in *In Search of Wisdom: Essays in Memory of John G. Gammie*. eds. L. G. Perdue, B. B. Scott, and W. J. Wisema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369-89를 참조하라.

3) Hyung-Dong Kim, "A Study of Q," 222-29; 김형동, "Q와 하나님의 나라: Q의 시작과 끝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105 (1999/여름): 150-71; idem, "Q 축복선언과 Q 화선언에 나타난 Q 형성의 신학적 특징과 삶의 정황," 『서울장신논단』 제 7 집 (1999): 86-108. 필자의 학위논문은 북미의 Q 학파의 입장에 도전을 던지며 Q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지를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관복음서 연구에 있어서 Q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일깨워줄 것이다.

II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복음서 기자 자신들(마태와 누가)도 이 말씀을 나름대로 이해하고자 관심을 기울였다. 마태는 폭력의 형태로 특징 지워지는 지금의 하나님 나라의 시대 속에 세례 요한을 포함시키는 것 같다(마 11:12a). 대조적으로, 누가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서부터 제외시키는 것 같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눅 16:16)⁴⁾ 최근 대다수의 Q 학자들은 Q 16:16b를 소위 “폭력”(침노, 침입)의 말씀으로 이해한다.⁵⁾ 이러한 해석은,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마태의 신학적 특징을 Q 본문에 반영하는 시대착오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클로펜보그의) 지혜와 묵시를 구분하는 계층구조적 가설에 근거한 인위적 해석이다.⁶⁾

먼저, 이 말씀 자체가 세례 요한에 관한 전승인지,⁷⁾ 아니면 율법에 관한 전승인지⁸⁾를 규명해야 한다. 이 말씀은 마태의 문맥에서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의 주장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마 7:7-15).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의 마태복음에서의 위치가 이 말씀의 본래적 문맥이라고 주장하지만,⁹⁾ 마태복음

4) Joachim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I: The Proclamation of Jesus* (London: SCM Press, 1971), 47. 예레미아스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행 1:5; 10:37; 13:24-25; 19:4)”는 주장을 펴고 있다.

5) Jacobson, *First Gospel*, 118; “하나님의 나라는 훼방되어 (혹은 침노를 당하여),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Kloppenborg, *Formation*, 114. 클로펜보그는 이 구절을 침노를 당하는 말씀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에 대하여 제이콥슨의 입장은 분명치 아니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정당한지는 확실치 않다”(First Gospel, 118).

6) 클로펜보그의 이론에 대한 자세한 소개에 대하여, 조태연, 『예수운동: 그리스도교 기원의 탐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349-77을 참조하라.

7) Norman Perrin, *Rediscovering the Teaching of Jesus* (New York: Harper & Row, 1967), 74-77. 페린은 Q 16:16을 세례 요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말씀으로, 따라서 예수의 진정한 말씀으로 간주한다(76).

8) Paul Hoffmann, *Studien zur Theologie der Logienquelle*. NTAbh 8 (Münster: Aschendorff, 1972), 54; Tuckett, *Q*, 135-37; 참조. Bruce D. Chilton, *God in Strength: Jesus' Announcement of the Kingdom* (Sheffield: JSOT Press, 1987), 207 n. 6.

9) Jacobson, *First Gospel*, 116ff; Kloppenborg, *Formation*, 114; Jeremias, *Theology*, 46-47; Hoffmann, *Studien*, 51-52; Schenk, *Synopse zur Redenquelle der*

11장 15절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마태복음 11장 12-15절이 마태의 편집임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곳에서 마태는 단지 마가의 표현을 따르고 있지만, 마태복음 11장 15절은 마가복음에서 그 평행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마태복음 11장 12-13절의 문맥은 마태의 손길을 반영한다.

한편,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간음에 관한 다른 말씀들(눅 16:17, 18)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이 말씀들에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 이 비유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눅 16:31)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따라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누가의 신학을 반영하는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¹⁰⁾ 그렇다면 Q 16:16이 독립된 별개의 말씀으로 다른 두 말씀들(눅 16:16-17)과 나란히 위치한 것인가? 아니면 누가가 세 말씀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전승에서부터 16-18절을 발견한 것인가? 다수의 학자들은 누가가 16-18절을 이전 자료에서 하나의 단위로서 발견했다고 주장한다.¹¹⁾ 누가복음 16장 16-18절은 마태복음에서 그 평행절을 갖는다(마 5:17, 18, 32; 11:12f).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함은 이 말씀들이 Q에서 함께 하나의 단위로 있었다는 주장에 무게를 더해준다. 따라서 누가의 문맥이 좀 더 본래적인 것 같다.¹²⁾

Q 16:16이 본래적으로 율법에 관한 전승인 점은 이 말씀을 구성하는 어휘를 고려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마태는 시작하는 구절의 순서를 뒤바꾸고서 “율법”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소개하고, “예언하였다”(ἐπροπέτευσαι)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이...”(마 12:13). 누가복음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래적인 것 같다: (1)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선지자들과 율법”이라는 표현보다 더 일반적이고, (2) 선지자들과의

Evangelien (Düsseldorf: Patmos Verlag, 1978), 43-44.

10) Jacobson, *First Gospel*, 119; Kloppenborg, *Formation*, 113: 클로펜보그는 율법의 유효성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노력이 주어진 문맥에서의 주된 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제이콥슨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누가 16장 16절을 이해한다.

11) David Daube, *The New Testament and Rabbinic Judaism* (London: The Athlone Press of the University of London, 1956), 294; Heinz Schürmann, "Sprachliche Reminiszenzen an abgeänderte oder ausgelassene Bestandteile der Spruchsammlung im Lukas- und Matthäusevangelium," *NTS* 6 (1960): 201; idem, "Wer daher eines dieser geringsten Gebote auflöst . . ." *Wo fand matthäus das Logion 5,19?*, *Biblische Zeitschrift* 4 (1960): 238-50, esp. 245; Tuckett, *Q*, 406-07.

12) Tuckett, *The Revival of the Griesbach Hypothe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152f; Daube, *Rabbinic Judaism*, 294; Hoffmann, *Studien*, 54.

관련에서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누가의 관행이지만(11:50; 13:28; 24:27; 행 3:18; 10:43), 누가는 여기서 단지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Q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표현되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적어도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aeon*, *에온*)가 시작되었음을 말한다.¹³⁾

그러나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점은 이 새로운 시대(*에온*)와 세례 요한의 관련성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마태의 이해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누가의 이해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즉, 세례 요한은 지금(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구약의 시대에 속하는가? 이를 위하여 마태의 “*ἔως*”와 누가의 “*μέχρι*” 사이의 Q 원문을 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태의 “*ἔως*”가 더 좋은 읽기이다.¹⁴⁾ 첫째, 누가의 “*μέχρι*”는 다른 곳에서 누가의 편집을 반영한다(행 10:30). 이로써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지금의 시대에서 요한을 배제시킨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계속하여 구원의 때는 세례 요한의 사후에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다(행 1:5; 10:37; 13:24-25; 19:4). 둘째, 마태의 편집을 반영하는 다른 곳(마 11:23; 28:15에서의 “*μέχρι*”)을 고려할 때에, “*ἔως*”가 본문의 읽기이다.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8장 15절에서의 “*μέχρι*”에 대한 마태의 이해를 고려해 볼 때에, “*μέχρι*”는 특정한 때를 포함한다. 한편, 마태복음 23장 39절과 26장 29절에서 “*ἔως*”는 에 대한 귀착점으로 특정한 때를 배제한다(*terminus ad quem*).¹⁵⁾ 따라서 Q의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는 표현은 요한을 “율법과 선지자들”

13) E. Käsemann, *Essays on New Testament Themes* (London: SCM Press, 1964), 43; Tuckett, Q, 407.

14) 누가의 “*μέχρι*”는 다른 곳에서 누가의 편집의 손길임을 반영한다(행 10:30; 20:7), 이로써 누가는 요한을 하나님 나라의 현 시대에서 배제시킨다(행 1:5; 10:37; 13:24-25; 19:4). 또한 다른 곳에서의 마태의 편집을 고려할 때(마 11:23과 28:15에서의 “*μέχρι*”), “*ἔως*”가 여기에서 사용된 것 같다.

15) 참조. Chilton, *God in Strength*, 216-17. Q 16:16a의 본래적 형태에 관한 차일튼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마태의 ‘*ἀπ’ ἄρτι*’라는 표현은 보른캄이 해설한 마태의 두 단계 종말론과 일치한다. 그러한 종말론은 정확하게 11:12의 ‘*ἔως ἄρτι*’의 표현이 전제하는... 것이다.” 마태의 편집에 근거하여, 차일튼은 Q 본문을 추론하여 내었다.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마태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들과 함께 재배치하였다. 마태는 누가복음에서 단 한번 언급되는 말씀, “*ἀπὸ τότε*”를 “*ἀπ’ ἄρτι-ἔως ἄρτι*”의 형태로 바꾸었다. 주목할 것은 “*ἀπ’ ἄρτι*”는 마태의 특징적인 표현이다(마 23:39; 26:29, 64). 마태에게 있어서, “지금”(ἄρτι)는 그 시점으로부터 파루시아가 기대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마태는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 “*ἀπο (τοτε)*”를 “*ἔως ἄρτι*”와 더불어 새롭게 해석한 것 같다.

로 표현되는 구약의 시대가 아닌, 지금의 시대, 즉,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포함시킨다. 달리 말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초대교회로 돌리는 볼트만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¹⁶⁾

16:16b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태의 본문이 보다 본래적 Q 본문에 가깝다.¹⁷⁾ “복음이 전파되다”(εὐαγγελίζεται)는 동사는 누가-사도행전의 요약 문구(눅 4:43; 8:1; 행 8:12)에서 누가가 즐겨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누가의 편집의 특징을 반영한다. 또한 차일톤이 지적한 바, “βία는 사도행전에서 사람의 손에 의한 파괴적인 폭력을 일관되게 가리킨다(5:26; 21:35; [24:7]; 27:41).”¹⁸⁾ 주목할 것은 신약성서 기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만이 “εὐαγγελίζεται”라는 동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눅 4:43; 8:1; 행 8:12). 따라서 누가는 “βιάζεται”를 그가 즐겨 사용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복음이 전파되다”는 용어로 대신했을 것이다.¹⁹⁾ “βιάζεται”가 본래적 읽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²⁰⁾ 그렇다면 이제 “βιάζεται”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βιάζεται”는 중간태/수동태로 그 해석이 둘 다 가능하다. 중간태는 “힘차게 다가오다”²¹⁾는 의미를 나타내고, 수동태는 “폭력에 의해 강탈되다/강점(強占)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중간태 형태가 신약성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적용된 다른 여러 동사들의 의미와 일치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 사용된 “가까이 왔다”(ἤγγικεν), “오다”(ἔρχεται), “이르렀다”(ἔφθασεν)는 동사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가진다.²²⁾ 또한, 차일톤이 지적하듯이,²³⁾ 탈굼(targum)에서 히브리어 *tqp*(“βιάζειν”)는 하나님 나라를 알림과 관련하여 능동태로 나타난다(TIs 56:1, 2; 60:22; 61:1). 더욱이, 이사야 탈굼 27:5, “요한까지 율법ियो, 그 후부터 하나님의

16) 참조, Perrin, *Rediscovering*, 76; Käsemann, "The Problem of the Historical Jesus," in *Essays on New Testament*, 15-47. esp. 43; J. M. Robinson, *A New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London: SCM Press, 1959), 117.

17) Kloppenborg, *Formation*, 113-14; Jacobson, "Wisdom Christology," 79, Schulz, *Spruchquelle*, 262; Hoffmann, *Studien*, 51-52; Tuckett, *Q*, 407.

18) Chilton, *God in Strength*, 219.

19) Jacobson, *First Gospel*, 117.

20) 한편, 누가의 “εὐαγγελίζεται”를 본래적 읽기로 간주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W, Bussmann, *Redenquelle*, 62; Catchpole, "Law and Prophets," 96을 참조하라.

21) Bauer, *Greek-English Lexicon*, 140.

22) Chilton, *God in Strength*, 220; Marshall, *Luke*, 629-30; Theodor Zahn, *Das Evangelium des Matthäus* (Leipzig: Diechert, 1903), 427.

23) Chilton, *God in Strength*, 226-27.

나라이다”는 요지는 본문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Q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힘으로 다가온다”는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현재성/임재를 가리킨다.²⁴⁾

하지만 천국과 관련하여 마태는 "*βιάζεται*"를 수동태로 이해한다. 마태에게 있어서 천국의 현재성은 침노를 당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 천국은 현재 공격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다. 아마도 마태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한 천국을 선포한 세례 요한의 죽음과 로마인들에 의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태는 축복선언에 있어서도 “박해받다”는 말을 덧붙인다(마 5:11; cf. 눅 6:22). 이러한 이해는 마태복음 11장 12b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침노하는 자들(*βιασταί*)이 천국을 ‘강탈한다’(*ἁρπάζουσιν*).” "*βιασταί*"는 이후의 기독교 문헌의 사용에서도 한결같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며, 또한 "*ἁρπάζω*"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악한 자”(마귀/사탄)의 빼앗는 행동을 가리킨다.²⁵⁾ 따라서 표준새번역의 “하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는 해석은 마태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²⁶⁾ 오히려 개역성경의 번역,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가 마태복음 자체의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침노와 “침노하는 자”를 굳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의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는 잘못된 해석이다.

Q 16:16b에 대하여 차일톤은 Q 형태에 있어서 "*βιάζεται*"는 반복되어 사용되었고, 마태복음에 있어서 명사 형태의 "*βιασταί*"(침노하는 자들)의 사용으로 둘째 "*βιάζεται*"는 "*ἁρπάζουσιν*"(빼앗느니라)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다.²⁷⁾ Q 16:16에서 같은 동사가 반복되고 있음은 『나사렛 사람들의 복음서』(the Gospel of Nazarenes)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의 복음서에서는 첫째 "*βιάζεται*"는 "*διαπάζεται*"로 대체되었다.²⁸⁾ 그러므로 Q 16:16b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²⁹⁾

24) Chilton, *God in Strength*, 229. 차일톤의 표현에 의하면, "Kingdom of God avails itself."

25) E. Schweizer, *Matthew*, 262; idem, 『국제성서주석』, 276-77.

26) NIV: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이러한 해석으로는 다음의 주석이 있다: 강병도 편저, 『호크마 종합 주석 마태복음』(서울: 기독교지혜사, 1990), 419-20.

27) Chilton, *God in Strength*, 220-22.

28) Chilton, *God in Strength*, 221. Daube, *Rabbinic Judaism*, 288; Dalman, *Words*, 141; B. Ralph,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th Violence," *Expository Times* 28 (1916-17): 427.

29) 참조. Chilton, *God in Strength*, 229; Zahn, *Matthäus*, 127; Ralph,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βιάζεται (하나님 나라가 강한 힘으로 다가온다)
καὶ πᾶς εἰς αὐτὴν βιάζεται (모두는 힘써 그 나라로 들어간다)

예레미아스가 지적하듯이,³⁰⁾ 이 말씀은 구원의 즐거운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차일톤은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다가오신다”³¹⁾고 주장한다. 만약 본문에 대한 필자의 이해가 옳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게 임재하여 그 힘을 드러내며 (누가가 이해한 것과 같이) 사람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점에서 누가는 Q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누가는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로 진술했다. 누가는 예수의 행위와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현재성/임재를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한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시킨다.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마태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εἰσελθατε, 마 7:13)는 말씀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라”(ἀγωνίζεσθε εἰσελθεῖν, 눅 13:24)고 권면한 누가의 이해와 일치한다. 따라서 개역성경의 번역 “침입하느니라”는 그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누가의 신학적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힘써 들어간다” 혹은 “들어가기에 힘쓰고 있다”는 번역이 더 적절한 것이다.

요약하면, Q 16:16은 (1) 세례 요한의 사역을 율법과 대조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간주하고,³²⁾ (2)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현재성/임재의 시간이며, (3)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반응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Q 16:16은 소위 “폭력 문장”(violence sentence)로 이해되는 심판 예고의 말씀(Q2)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현재성/임재와 그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을 가리키는 예수의 진정한 말씀을 반영한다.

"Kingdom," 427; Perrin, *Rediscovering*, 75f; Rudolf Schnackenburg, *God's Rule and Kingdom*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8), 132.

30) 참조. Jeremias, *Theology*, 117.

31) Chilton, *God in Strength*, 229-30.

32) 각주 7. 세례 요한을 “새 시대(aeon)의 시원자”로 제시하는 보다 상세한 논의에 대하여, E. Käsemann, *Essays on New Testament Times*, 15-47; J. M. Robinson, *New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London: SCM Press, 1959), 117 n. 1을 참조하라.

III

Q 16:16에 대한 복음서의 이해는 예수 전승(Jesus tradition)이 복음서(마태 복음과 누가복음) 기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초기 예수 전승을 담고 있는 예수 어록(Q)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Q 연구는 공관복음서 자체의 연구로서 복음서에 묻혀 있는 예수를 처음 따랐던 무리들(혹은 공동체)과, 세례 요한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새롭게 밝혀주는 연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처음 예수 공동체가 굳게 부여잡았던 확신과 소망을 포함하는 하나의 상징적 정형(symbolic form)이 있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예수가 주창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징적 정형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Q 16:16은 소위 “폭력 문장”으로 이해되는 심판 예고의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Q 16:16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현재성/임재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로써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복음의 전파이며(누가복음), 한편 부정적으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한 방해와 핍박과 침노를 받기도 한다(마태복음).